



케이트 부시, 뷰욕, 토리 에이모스, PJ 하비 등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레시브-얼터너티브 여성 록 뮤지션의 계보를 잇는 2000년대 가장 창의적인 기타리스트 겸 싱어송라이터라는 평을 받고있다. 매우 실험적인 음악 스타일을 자주 선보인다.

본명은 앤 에린 클라크(Anne Erin Clark) 로 오클라호마 주 출신이지만, 4살때 텍사스로 이사를 간다. 12살때부터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으며, 텍 앤 패티의 기타리스트 텍 앤드레스가 그녀의 삼촌인데, 그들의 투어매니저로 동행하거나 연주를 보며 많은 음악적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버클리 음대에 입학하여 좀 더 프로페셔널한 기타 연주를 연습하고, 학생들과 함께 EP 를 발매하기도 하며 녹음에 매진하다가, 틀에 박힌 커리큘럼에 실망해 학교를 그만두고 텍사스로 돌아와서 폴리포닉 스프리(Polyphonic Spree)의 기타리스트로 유럽 투어를 돌고, 수프얀 스티븐스(Sufjan Stevens) 의 투어 멤버로 음악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2007년 데뷔 음반 <Merry Me>로 전세계 음악팬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고 대중적인 성공을 하게 된다. 2008년 PLUG independent music award 에서 올해의 신인, 올해의 여성 아티스트, 뮤직비디오 까지 3개의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고, 올해의 여성 아티스트 상을 받는다. 2009년 4AD records 를 통해 2번째 앨범 'Actor' 를 발매했다. 싱글을 따로 내지 않고 정규 발매하였으며 빌보드 200 앨범 차트에서 90위 까지 올라갔다. 2011년 Strange Mercy 라는 앨범을 내고 이전보다 조금 더 좋아진 성적으로 차트의 19위 까지 올라갔다. 2012년에는 예술적 음악을 선사하는 아티스트 데이빗 번(David Byrne)과의 콜라보 음반을 내면서 음악적으로도 큰 성과를 냈다. 롤링 스톤, NPR, 피치포크 등 여러 음악 매체는 이미 그런 그녀를 향해 수많은 찬사를 던진 바 있다. 2014년 4월 10일에 록큰롤 명예의 전당 무대에서 전설적인 얼터너티브 록 그룹 너바나(Nirvana)의 멤버들과 함께 무대에 서면서 커트 코베인(Kurt Cobain) 대신 보컬과 기타를 연주한 것만 봐도 현재 그녀의 위상을 설명이 된다고 볼수 있다. 2014년 st.vincent 라는 본인의 활동명을 건 앨범이 발매 되었고, 각종 매체와 매거진, 아티스트들로 부터 찬사를 받으며 활동을 했다.

2015년에는 57회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얼터너티브 앨범상을 수상하며 생애 첫 그래미 상을 받았다.

2017년 현재 오랜만에 새로운 싱글이 발매되고 있는데, New york 이라는 곡과 Los Angeless 라는 곡이 뮤직 비디오와 함께 발매 되어 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팝가수 중의 한 명이자 가장 성공한 아티스트 중 한 명 이고, 그래미 역사상 최초로 올해의 앨범상을 2개 수상한 여성 가수이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1989년 12월 13일생.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태어나 14살 즈음 컨트리 음악을 추구하기 위해 내쉬빌로 이사한다. 싱어송라이터로 자신의 곡 모두를 자신이 직접 또는 공동 작사, 작곡한다. 특히 3집 "Speak Now"는 전 곡의 송라이터 목록에 테일러 스위프트 한 명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한 곡에 5~6명씩, 많으면 10명 이상이 달라붙어서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가 태반인 현실에서 실로 대단한 것이다. 자국인 미국에서의 인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한 해에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특히, 미국 10~20대 여성들에게 가히 절대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컨트리 음악으로 유명한 남부에서도 그 인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더욱이 미국에서 총판 100만 장만 넘겨도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시대에 1집부터 5집까지 400만 장 이하로 판 앨범이 없을 정도로 앨범 판매고 부문에서도 도저히 2000년대 말 ~ 2010년대의 가수라고는 보기 힘든, 대단한 판매량을 자랑한다.

90년대 중반부터 급부상한 컨트리 팝의 계보를 잇는다. 90년대 샐리아 트웨인(Shania Twain)과 인기 등 여러 면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테일러 본인 역시 샐리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통 컨트리를 애호하는 사람들이나 안티들은 스위프트가 추구하는 음악 노선이 컨트리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1집 "Taylor Swift"가 전형적인 컨트리 사운드에 10대스러운 가사만 약간 첨가했다면 2집 "Fearless" 부터는 급격하게 컨트리 팝으로 기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4집 "Red"에서는 앨범의 리드 싱글 'We Are N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와 세 번째 싱글 'I Knew You Were Trouble'에 컨트리적 요소를 모두 빼버리고 팝적인 요소만 남겨두면서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각각 최고 순위 1위, 2위) 스위프트 음악의 장르를 과연 컨트리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생겨났다. 설상가상으로 네 번째 싱글 또한 컨트리라고는 볼 수 없는 '22'로 선정되면서 그 논란은 더욱 심화되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5집은 테일러 본인이 공식 팝 앨범이라고 밝혀 종결되었다. 5집의 리드 싱글 'Shake It Off'가 차트에서는 니키 미나즈의 'Anaconda'를 제치고 1위로 데뷔했고 빌보드 비연속 4주 1위를 차지했다. 두 번째 싱글 'Blank Space'는 싱글컷 되자마자 빌보드 1위를 차지하며 본인의 싱글 'Shake It Off'를 1위에서 2위로 끌어내렸다. 이 기록으로 스위프트는 다른 싱글 2개로 연속해서 빌보드 차트 1위를 이어받는 첫 여자가수가 되었다. 2017년에 발매 된 싱글 Look what you made me do 는 77위로 빌보드 핫 100에 진입하고<sup>[3]</sup> 다음주에 바로 16주 1위를 차지하고 있던 데스파시토를 꺾고 1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Cardi B의 Bodak Yellow에게 빌보드 핫 100 1위 자리를 내주었다. 한편 2집 "Fearless"에서부터 시작된 논란과 동시에 스위프트는 이 앨범으로 2010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8개 부문에 지명되어 만 20세라는 나이로 최연소 Album of the Year 수상자가 되었고, 이외에도 3개 부문 수상 이라는 무서운 저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3집 이후 컨트리 시상식을 포함한 여러 시상식에서 스위프트의 라이브 무대에는 높은 확률로 기립박수가 쏟아져 나온다.

거장이나 뛰어난 라이브 무대를 보여준 사람에게만 기립박수를 보내는 시상식의 특성상, 가창력이 뛰어나다고 보기 힘든 스위프트의 무대에 다들 기립박수를 보낸다는 것은 다른 가수들 또한 그녀를 음악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하다. 그녀의 가사는 초반에는 자신이 직접 인정했듯이 굉장히 동화스러운 이미지를 물씬 풍겼다. 아예 2집의 수록곡 "White Horse"는 백마를 탄 왕자님으로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비유하며 곡을 이끌어 나갈 정도로, 앨범 프롤로그에도 "자신은 동화 속 이야기를 굳건히 믿는다" 하며 공주님 같은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허나 이는 지금 많이 바뀐 상태. 5집의 Wildest Dreams은 섹스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약간 몽환적인 느낌으로 전체 노래를 잘 이끌어 나갔고, 최근 뮤직 비디오 "I Don't Wanna Live Forever"에서는 란제리를 입고 침대에 드러누워 버리는 등 과거의 그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파격적인 변신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2017년 현재 27살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섹시하면서도 건전하게 지킬 선은 지키는 그녀의 모습을 옹호하는 팬들도 많다. 한편 노래의 주제가 너무 유치하다는 평을 간혹 듣기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곡을 쓸 때 그녀의 나이 또한 10대~20대 초반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사가 유치하다는 이유로 까이기 시작했을 때, 테일러의 나이는 고작 18세였다. 10대가 10대의 사랑 이야기를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며, 실제로 그녀의 나이 22세에 발표한 4집의 'Begin Again'은 그 수려한 가사로 여러 매체로부터 스위프트의 작사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곡이라는 찬사까지 받았을 정도로 송라이터 테일러 스위프트는 뛰어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나이대를 운운할 것도 없이 현재 스위프트급으로 인기 있는 여자 가수들 중 가사가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없다. 케샤, 케이티 페리, 레이디 가가, 이기 아잘레아, 아리아나 그란데, 니키 미나즈, 핑크처럼 여가수에 한해서는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미국의 대중음악 시장에서, 퍼포먼스가 눈을 끌 만한 요소도 없고 노래 실력(특히 라이브)도 상대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여가수가 히트를 치는 이유는 곡 자체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2017년 11월 발매 예정인 정규 앨범 Reputaion 의 싱글들이 차례로 발매되는 중이며 Look what you made me do 처음 공개되었고, 9월 3일 "...ready for it?" 이 발매 되어있는 상태이다.

